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124>

고위험 임신의 관리

김중운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



산모 고령·다태 임신 뎀 특별 관리

기형아·산모 후유증 위험

정기적 진찰로 예방해야

국가적 지원 중요성 대두

최근 산모의 고령화, 다태임신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고위험임신 산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을 저하 및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분만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임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국가 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위험 임신은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 임신의 위험요소는 ▲미혼모 ▲

담배 또는 약물복용 ▲저체중 또는 비만 산모 ▲19세 이하의 임신부와 35세 이상의 초임부 ▲다태임신 ▲지연임신 ▲태아 기형의 과거력 ▲자궁 내 태아발육 지연 ▲자궁 및 자궁경부의 기형 ▲늦은 산전 진찰 또는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 ▲Rh 동종 면역 ▲양막 조기파열 ▲임신성 고혈압 ▲내과적 병력이나 내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분만 전 출혈이 있는 경우 ▲조기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과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내 태아 사망이나 신생아 사망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고위험 임신의 위험요소가 있는 임신부는 위험요소가 없는 임신부에 비해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 임신에서는 태아의 기형발생률 증가, 조산으로 인한 태아의 사망 또는 손

상기 발생, 산모의 뇌출혈·간출혈·신장 손상 또는 거대아로 인한 자궁의 손상 및 출혈 등 생명의 위협 및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모체 혈청 태아 기형 검사, 태아 염색체 검사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제대 천자), 정밀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 태아 안경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임신 인자를 찾아내는 등 산모 및 태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 감소에 나서는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중운 교수 “고위험임신 위험요소를 가진 임신부는 물론 임신 전 여성이 적절한 산전 관리 및 임신 전 관리를 받는다면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을 유지하며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lucky@

전남금연센터 ‘4박 5일 캠프’ 성공률 75%

(4주 금연)

의료진 치료·상담사 관리 효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금연지원센터(센터장 권순석)의 금연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4박 5일간 무료입원을 통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성공률이 70%대를 넘어설 정도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금연캠프 수료자를 대상으로 12월 기준 4주 금연성공률은 75%, 6개월 성공률은 62%로 집계됐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병원내에서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 5일), 전남도내 곳곳에서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1박2일)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치료형 캠프’는 올해 159명이, ‘일반지원형 캠프’는 8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중 상담수는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들로, 의료진의 체계적인 치료와 전문상담사의 지속적 관리

를 통해 높은 금연성공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또 병원 외래진료 환자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 시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69명이 등록·참여했다. 전화·대면상담도 370여회에 이른다.

최근엔 병원 로비에 금연·암예방 부스를 개설하고 상담과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올해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대학생·여성 흡연자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행해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이 밖에도 전남의 11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상담·홍보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권순석 센터장은 “내년에는 지자체·교육기관·보건기관 등과 상호협력 및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 내 금연사업 핵심거점기관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심혈관 질환 치료 줄기세포

안영근 교수 연구 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사진)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영근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DMC TOWER에서 열린 2017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및 심근재생 유도 연구 성과 등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의료기술 우수연구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안영근 교수는 전임상과 임상연구는 물론 기초과학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세포재생연구센터(cell regeneration research center·CRRC·www.reheart.co.kr)를 이끌어 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천연물·유전자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의 기능재생 연구에도 집중, 국제학술지 442편, 국내 학술지 409편, 국내외 특허 15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이 최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QI)을 위한 경진대회’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환자)만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의료질 경진대회’ 직원들 열띤 발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QI)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질 관리실(실장 주재균 외과 교수) 주최로 ‘함께 즐기는 QI’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QI 경진대회에서는 첫날 병원 로비에서 포스터 전시 및 우수포스터 선정 행사가 진행됐으며, 다음날에는 6동 백년홀에서 본 행사가 열렸다.

QI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서가 펼쳐온 활동 내용을 정리·발표하는 행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질 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본 행사에는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1·2부로 나눠 QI활동 우수사례 구연발표로 진행됐다.

주재균 실장을 좌장으로 시작된 1부에서는 ▲퇴원 의무기록 관리를 통한 입원 OCS 추진단 일치율 향상 ▲말초 정맥주사 관리지침 이행을 통한 정맥염 방지 활동 ▲분만실 간호사의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로 인한 업무만족도 향상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정명숙 간호부장을 좌장

으로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표준화를 통한 측정 인식도 및 정확도 향상 ▲말초정맥주사 관리지침 이행을 통한 정맥염 방지활동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자기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이해도 및 만족도 향상 등이 발표됐다.

이삼용 병원장은 “QI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만족이며, 나아가 병원이 한걸음 앞서가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 건강 청연한방병원 깜짝 행사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아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청연한방병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2일 소아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타클로스 복장을 갖춘 의료진이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아재활 환자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정훈 원장과 실재욱 원장이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줬다.

선물을 받은 소아재활환자의 부모는 “아이와 식사 중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깜짝 놀랐다”면서 “병원에서 정성껏 치료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주시 감동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실재욱 청연한방병원장이 소아재활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강정훈 원장은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했다”면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병원 구성원

들의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 지는 선물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광주청연요양병원도 산타 복장을 하고 각 병동을 돌며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